

‘도서관의 친구’에 관한 고찰: 도서관도 이제 친구가 필요하다

A Study on Friends of Libraries Groups: Libraries Need Friends

김 영 석(Young-Seok Kim)*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4 캐나다 |
| 2. ‘도서관의 친구’ | 3. 5 기타 국가 |
| 2. 1 ‘도서관의 친구’는 누구인가? | 4. 관종별 ‘도서관의 친구’ 활동 사례 |
| 2. 2 ‘도서관의 친구’ 외의 다른 ‘친구’들 | 4. 1 공공도서관 |
| 2. 3 ‘도서관의 친구’의 출현과 주요 활동 내용 | 4. 2 국가도서관 |
| 3. 각국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 4. 3 대학도서관 |
| 3. 1 미국 | 4. 4 학교도서관 |
| 3. 2 영국 | 4. 5 특수·전문도서관 |
| 3. 3 호주 | 5. 끝맺는 말 |

초 록

이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은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 현황을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일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이 ‘도서관의 친구’는 근 1세기 동안 세계 각국의 여러 관종의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이 그룹은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활동, 로비 및 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도서관의 친구’는 최근 들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점점 더 많은 국가의 도서관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도 ‘도서관의 친구’를 활용하면 도서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analyze the operations and activities of Friends of Libraries groups in foreign countries. Friends of Libraries are groups of people who are voluntarily associated in order to assist libraries in their work. They have been involved with various libraries in many countries for almost a century. They support libraries by raising funds, working as volunteers, performing P.R. activities, operating political campaigns and being involved in the community. Nowadays, Friends groups are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at any time in their history because they provide such diverse support. Thus, new groups are being established in many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Friends groups could improve library operations and services in Korea.

키워드: ‘도서관의 친구’, Friends, Friends group, Friends of the Library

* 명지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강사(y9s9kim@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5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5년 3월 10일

1. 들어가는 말

‘도서관의 친구’는 지난 1세기 동안 세계 여러 나라의 각종 도서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오늘날 이들 그룹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들 그룹이 사서와 도서관 경영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 하나는 도서관에서의 마케팅 기술의 도입이다. 즉 도서관에 홍보(P.R.)와 마케팅 등 새로운 경영기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 홍보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해야 할 그룹으로 부각된 것이다. Leerburger(1989, 14)는 ‘도서관이 지역사회내의 역량 있는 집단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지원 그룹을 만드는 것은 도서관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라며 도서관 홍보에 있어서 ‘도서관의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늘날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 마케팅 대상 이상의 긴요한 그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를 홍보 할 뿐만 아니라 기금모금, 자원봉사, 로비 및 캠페인, 지역주민 연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예산삭감과 같이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도서관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은 ‘도서관의 친구’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Leerburger(1989)는 도서관들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럴 때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얻어 문제점들을 해결해

야 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오늘날 도서관들은 수많은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새로운 기술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방법으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하게끔 해주고 새로운 세대들은 좀더 다양화된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 예산의 감소는 서비스와 운영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서관은 지역사회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¹⁾

한편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직원 및 경영자들에 의해 꼭 필요하고 의미있는 집단으로 인정받음으로써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에도 참여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들은 도서관에 기금을 제공함으로써 도서관의 재정 운영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고, P.R. 활동을 함으로써 도서관 마케팅에 참여하고, 정치인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도서관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함으로써 도서관의 지역사회 홍보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원하고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서관의 친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서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로 인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의 친구’는 본 연구와 같은 학술논문을 통해서서는 처음으로 국내 도서관·정보학자, 도서관 사서 그리고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에게 소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서

1) Leerburger, B. A. 1989. *Promoting and marketing the library*. Rev. ed. Boston, Mass.: G. K. Hall의 뒷표지에서 인용

관의 친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 즉,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도서관의 친구'가 생겨났으며 각국에서의 활동사항은 어떤지 그리고 관중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하게 조사 분석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나라 도서관들이 당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의 친구' 운영을 고려해 보기를 기대한다.

2. '도서관의 친구'

2.1 '도서관의 친구'는 누구인가?

'도서관의 친구'는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의 경우 그 도서관과 관련 있는 사람들 즉, 학생, 교사 혹은 교수, 학부모, 동문, 은퇴교수들, 그리고 국가도서관의 경우 시민들이 주축이 되어 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친구는 더 없이 소중한 필요조건이다. 친구는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고민이 있을 때 귀 기울여주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을 자신의 또 하나의 친구로 만든 사람들이 도서관에 각종 행사가 열릴 때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도서관을 물질적 혹은 경제적으로 돕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내용을 홍보한다. 또한 도서관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서관을 대신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도서관 정책 결정자를 상대로 로비를 한다. 그리고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른 도서관 이용자 혹은 일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도서관 경영자나 사서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 그룹과 수시로 만나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개선점 그리고 '도서관의 친구'가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논의한다.

때때로, 특히 영국에서 '도서관의 친구'들은 'Friends of the Library'와는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어떤 그룹들은 자신들의 특정 활동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서 'Library Action Group', 'Library Support Group', 'Library User Group', 'Library Matters', 'Library Campaigning Group' 등으로 이름을 짓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들도 주요 활동 내용은 일반적인 그룹의 활동 내용과 동일하다(Kim 2003).

2.2 '도서관의 친구' 외의 다른 '친구'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유럽 국가들에는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친구'(Friends)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후원회 조직들이 많이 있다. '도서관의 친구'가 도서관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면 다른 기관, 건물, 장소, 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다. 이들 '친구' 그룹들은 돕는 대상은 달라도 돕는 방법은 대체로 '도서관의 친구'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볼 때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은 도서관만의 독특한 특징이 아닌 사회 전반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즉, 서구의

선진 국가들에서 경제가 발달하고 사회가 다양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시민사회도 함께 성숙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후원회, 자원봉사, 자선단체 등 각종 시민단체들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 혹은 사회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의 친구'의 출현은 이러한 성숙된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서관의 친구' 외의 다른 '친구'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그룹들이 있다.

- 박물관의 친구(Friends of the Museum)
- 지구의 친구(Friends of the Earth)
- 공원의 친구(Friends of the Park)
- 교회의 친구(Friends of the Church)
- 성당의 친구(Friends of the Cathedral)
- 공항의 친구(Friends of the Airport)
- 축제의 친구(Friends of the Festival)

2.3 '도서관의 친구'의 출현과 주요 활동 내용

우리 나라 사람에게 낯선 '도서관의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여러 도서관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Murison (1979)과 Wallace(1968)에 의하면 '도서관의 친구'는 1세기 전인 1900년대 초부터 독일과 프랑스에서 각각 공공도서관과 국립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이 새로운 모임은 미국으로 전해져서 그 활동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처음 이 모임은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그 후 공공도서관과 학교 및 대학도서관 그리고 국립도서관 및 특수·전문도서관에도 전해지게 되었는데 현재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 하고 있다.

한편 '도서관의 친구'가 수행하는 5가지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Dolnick 1996).

- 기금모금(Fund-raising)
- 자원봉사(Volunteering)
- 홍보활동(Public Relations)
- 캠페인 및 로비활동(Campaigning or lobbying)
- 지역주민 연계활동(Community involvement)

이 활동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기금모금: 모임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도서관 행사를 돕는 등 도서관을 물질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 기금을 모금한다.

둘째, 자원봉사: 회원 중에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무보수로 도서관 일과 사서 업무를 돕는다.

셋째, 홍보활동: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을 이용하여 도서관의 중요성, 도서관 프로그램, '도서관의 친구' 활동 및 행사 등을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린다.

넷째, 로비활동: 도서관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자인 교육위원, 지방의회 의원과 국회의원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서관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거나 증액을 유도한다.

다섯째, 지역주민연계: 지역주민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 그리고 각종 도서관 서비스 내용 및 '도서관의 친구' 활동을 소개한다.

3. 각국의 '도서관의 친구' 활동 현황

'도서관의 친구'는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역사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나라에 소개되어 있지 않다. 현재 '도서관의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10여 개 국인데 주로 미국을 비롯한 영·미권 국가들이다. 한편 이들 영·미권 국가들에서의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은 그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활발하고 앞으로 그 운영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한편 '도서관의 친구'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최초로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미권 국가에서 발전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일 것이다.

첫째, 동일한 언어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영·미권 국가들 간의 사회 문화적 교류를 통해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 의미가 이들 국가들 사이에 빠르게 전파되었다.²⁾

둘째, '도서관의 친구'는 미국에서 활성화 되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친구'의 존재 의미가 미국인들의 독특한 시민의식과 일치했기 때문이다. 즉,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도서관의 친구'의 기본 활동은 기금모금, 자원봉사,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이다. 이러한 활동 내용은 미국인들이 서부 개척시대부터 이어온 봉사활동, 기부문화, 자발적인 참여문화 등과 일맥상통한다.

현재 '도서관의 친구'는 미국에 3,000개를 중심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스페인, 아이슬란드,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조직되어 있다. 이들 국가 중에서 미국에서의 활동이 가장 조직적이고 활발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많은 도서관 자원봉사자 그룹³⁾이 있지만 아직까지 '도서관의 친구'라는 조직은 없다⁴⁾. 위의 몇몇 나라들에서의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 미국

미국에서의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은 매우 빠르게 발전하였다. 미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이자 최초의 '공공도서관의 친구'인 『Glen Ellyn 공공도서관의 친구』는 1922년 일리노이에서 조직되었다(Wallace 1968). '대학도서관의 친구'는 '공공도서관의 친구'보다 조금 늦게 만들어졌다. 1925년 하버드대학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었다. 그 후 1960년대까지 수백 개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생겨났다. 특히 지난 30년 사이에 그 숫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Dolnick(1996)에 의하면 현재 미국에는 약 3,000개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있고 그 회원도 백만 명이 넘는다. 이처럼 미국에서 '도서관의 친구'가 빠르게 발전하게 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2) 영국 도서관계는 1999년 미국과 캐나다의 '도서관의 친구' 관련자를 초청해서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강습회(workshop)를 개최한 적이 있다. 필자도 이 강습회에 참석하였었다.
3)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서울 송파(공공)도서관, 서울 신천초등학교 도서관 등 많은 도서관에서 도서관운영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4) 본 연구는 '도서관의 친구'가 국내에 소개된 바가 거의 없어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친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친구' 내지 '친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식 혹은 비공식 조직이 국내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이 조사는 '도서관의 친구'를 실제로 우리 나라에 만들 때 참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첫째,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도서관의 친구'가 처음 소개 되는 시기인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부터 이들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34년에는 협회 소식지에 '도서관의 친구'를 소개하였으며 이들 그룹의 설립을 독려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협회는 1935년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그룹을 조직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등의 활동으로 미국 내에서 '도서관의 친구'가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둘째, 1970년대부터 시작된 미국 내 도서관 예산의 축소가 '도서관의 친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Dolnick 1987). 셋째, 1979년에 설립된 '미국 '도서관의 친구' 국가조직'⁵⁾이 '도서관의 친구'의 양적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3. 2 영국

영국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미국과 다르게 대학도서관에서 만들어졌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던 해인 1925년에 옥스퍼드대학교 보들리언도서관(Bodleian Library)에 '도서관의 친구'가 설립되었다. 이 그룹에 이어 1931년에는 영국 국립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만들어 졌다. 한편 공공도서관과 관련해서는 Murison(1979)이 '공공도서관 이용자 자문위원회'에 대한 보고서⁶⁾를 발표할

때까지 193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

Murison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부터 영국의 여러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친구'는 1972년 런던의 자치구중의 하나인 Sutton에, 1975년 시골지역인 Devon과 Somerset에, 1976년 Bedfordshire에 그리고 1978년 도시지역인 Bradford에 각각 조직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영국에는 1980년대 중반까지 10개 이내의 그룹이 조직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지역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속속 등장하게 되었다. 이것은 영국의 지방자치 정부들이 예산 절감을 이유로 많은 공공도서관 분관들을 폐관시키려 했고 또 실제로 폐관시켰기 때문이다. 즉 지방정부에 의해 분관들이 폐관위기에 처해지자 많은 도서관 이용자와 지역주민들이 이 같은 정책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도서관의 친구'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 점은 영국 '공공도서관의 친구'가 다른 나라와 다른 점 중의 하나다. 그 후 '도서관의 친구'는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영국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보고서를 쓴 Smith(1998)에 의하면 현재 영국에는 150개 이상의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있다. 1984년부터 각종 도서관운동을 벌여온 『The Library Campaign』⁷⁾은 2000년 이후 영국 전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들

5) Friends of Libraries U.S.A. (FOLUSA)

6) Murison, W. J. 1979. *Public library user's consultative councils*(The British Library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London: the British Library.

7) <http://www.librarycampaign.co.uk/> [Accessed 02/02/05]

을 자신을 중심으로 조직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The Library Campaign이라는 이름으로 영국 '도서관의 친구' 전국조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3. 3 호주

호주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1932년에 공공도서관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후 1981년까지 단 2개의 '공공도서관의 친구'가 활동했을 뿐이다. 반면에 최초의 '대학도서관의 친구'는 1962년에 조직되었다. 그 후 1981년까지 6개의 대학교에 '도서관의 친구' 그룹이 만들어졌다. 호주 '도서관의 친구'는 1980-1990년대 사이에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Ferguson(1991)과 Smith(1999)에 의하면 1989년 약 80개였던 그룹은 1999년 160개로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이처럼 그 수가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도서관의 친구'의 성공적인 운영이 호주 도서관계에 영향을 끼쳤다. 호주 학자들인 Bundy(1998), Ferguson(1991, 1997) 그리고 Kirby(1995)는 미국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을 연구 조사하였는데 이 사실이 위의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둘째, '호주 도서관의 친구 전국조직'⁸⁾의 탄생을 많은 새로운 그룹의 형성을 가져왔다. 셋째, 공공도서관 분관의 폐관과 개관시간의 감소 그리고 지방자치 정부들의 자신들의 서비스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많은 새로운 '도서관의 친구'의 형성을 가져왔

다. 1990년에는 호주 국립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⁹⁾가 조직되었다.

3. 4 캐나다

Stockett(Skory 1989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캐나다 최초의 두 '도서관의 친구'들은 1932년에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 각각 조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까지 단지 몇 개의 '공공도서관의 친구'가 활동했던 사실을 통해 볼 때 공공도서관에서의 이들 그룹들의 활동은 미약했던 것 같다. Smith(1999)에 의하면 캐나다에는 현재 약 175개의 그룹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들 대부분의 그룹들은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조직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성공적인 미국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의 영향 때문이고, 둘째는 호주의 경우처럼 1998년에 만들어진 '캐나다 도서관의 친구 전국조직'¹⁰⁾이 많은 새로운 그룹의 형성을 가져왔다.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친구 그룹'(the Canadian National Library's Friends Group)은 1990년에 만들어 졌다.

3. 5 기타 국가

Wallace(1968)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친구'(La Société des Amis de la Bibliothèque Nationale et les Grandes Bibliothèques de France)로 1913년 파리에서 조직되었다. 이

8) Friends of Libraries Australia (FOLA)

9) The Friends of the National Library of Australia

10) Friends of Canadian Libraries (FOCAL)

그룹의 활동이 미국에 전해져 본격적으로 '도서관의 친구'가 여러 종류의 도서관에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는 '도서관의 친구'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프랑스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영문 자료가 없어 프랑스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활동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영국인 Murison(1979)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독일에서 조직되었다. 그는 독일의 한 '공공도서관의 친구'가 1979년까지 75년간 운영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 '도서관의 친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었던 1913년 보다는 9년이 앞선 1904년에 조직된 셈이다.

필자는 Murison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미국인인 Wallace는 1968년에 미국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친구'의 역사, 운영 그리고 활동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 등 다른 나라의 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빠뜨렸을 수 있다. 반면에 영국인인 Murison은 Wallace보다 10년 늦게 '도서관의 친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폭넓게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좀더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생각된다.

Wallace와 Murison의 자료를 통해 보면 프랑스와 독일에도 '도서관의 친구'가 운영되고 활동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Budnik(2002)은 글라스고에서 열린 제68차 IFLA대회의 주제 발표에서 칠레에도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도서관의 친구'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이혜연(2000)은 일본의 경우에도 개별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도서관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관종별 '도서관의 친구' 활동 사례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걸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는 위의 2.3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기금모금, 자원봉사, 홍보활동, 로비활동, 지역주민 연계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종류가 다른 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가 어떻게 이러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관종 별로 '도서관의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그룹을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4.1 공공도서관

- 영국 Sandwell '공공도서관의 친구'(Kim 2003)

영국 중부의 도시지역에 위치한 지방자치 단체인 Sandwell에는 2001. 3월 현재 19개의 공공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들은 1명의 관장에 의해 경영되는 분관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서 수는 전임제 사서(full-time)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21명이고 총 장서 수는 약 57만 건이다. 예산은 4.4백만 파운드(약 88억원)이다. 1년간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총 방문회수는 1,256,000회로 1인당 4.35회이고 1인당 자료 대출 수는 5.55건이다(CIPFA 2002). 이 지역에는 19개의 '도서관의 친구'들이 있다.

즉 19개 모든 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있다. 모든 그룹은 이 지역 도서관 당국(library authority)이 마련한 똑 같은 조직운영 규정(constitution)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그룹은 하나의 상위 조직아래 조직화 되어있다. 즉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19개의 '도서관의 친구'들은 연합조직¹¹⁾을 만들었고 이 상위 조직 하에서 상호 협력하고 함께 활동한다. 이 지역 '도서관의 친구' 운영과 관련해서 흥미 있는 사실은 2-3개 그룹의 회장직을 지방의회 의원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가시적 효과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속적인 참여는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지역 도서관 운영의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중앙도서관과 분관에 조직되어 있는 '도서관의 친구'는 그 설립 배경이 조금씩 다르다. 중앙도서관의 경우 지방정부의 도서관서비스 및 정책입안에 지역주민 및 도서관 이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서관의 친구'가 만들어졌다. 처음 중앙도서관의 친구가 설립되었을 때는 도서관의 특성상 그 회원수는 아주 적었다. 그런데 이 그룹이 자신들의 활동방향을 찾은 후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룹이 조직되고 처음 얼마동안에는 도서관 직원에 의해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모임을 이끌고 있다.

한편 분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

구'의 설립 배경은 위의 경우와 조금 다르다. 1990년 도서관서비스와 운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도서관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서관 당국은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계획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도서관의 친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예산삭감의 영향으로 몇 개의 분관들이 문을 닫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도서관당국의 '도서관의 친구' 설립계획에 적극 협조하였다. 따라서 도서관당국이 주민 공개모임을 개최하였을 때 지역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 모임에서 자신들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친구'를 설립하게 되었다.

'도서관의 친구'들은 봄철 야외행사, 크리스마스 행사 그리고 로또 기금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모았다. '도서관의 친구' 회원들은 규칙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에 '작가와 만남' 등의 특별한 행사가 열릴 때 사서들을 도와준다. 이 지역 '도서관의 친구' 연합체 회장은 지방의회의 도서관 위원회의에 참석하여 '도서관의 친구' 및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도서관 정책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한다. 또 '도서관의 친구'들은 자신들에 대한 홍보와 뉴스레터 등 작은 출판물의 발행을 통해서 도서관서비스를 널리 알린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룹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고 도서관 캠페인을 벌인다. 또 '도서관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 축제 등에 참여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도서관 서비스

11) The Federation of Sandwell Library User Groups. 이 지역 '도서관의 친구'는 Library User Group이라 불린다.

를 알리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4. 2 국가도서관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 도서관에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중 '영국 국립도서관의 친구'(the Friends of the British Library)¹²⁾가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국립도서관의 친구'는 1989년 조직되었고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기본적으로 국립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도서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물질적인 공헌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서관의 친구'는 1989년 이후 현재까지 약 15만 파운드(약 3억원)에 해당하는 물질적인 기부를 하였다. 예를 들면 '도서관의 친구'는 1999년 도서관이 '조지왕 도서관(the King's Library)'¹³⁾을 건립할 때 조지왕의 흉상을 설치하는 비용을 부담하였고 희귀도서인 셰익스피어의 시(Shakespeare's bonnets)를 구입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도서관의 친구'는 이 이외에도 국립도서관이 다양한 자료를 구입하고, 새로운 시설을 갖추고, 도서관 특별 행사 추진을 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었다.

'도서관의 친구'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는데 운영위원장은 영국 상원의원이 맡고 있

다. 이 그룹은 두 명의 부회장을 비롯하여 10여명의 위원 그리고 행정과 실무 업무를 수행하는 회원들을 가지고 있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1년에 세 번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는 자체 회원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박물관 등 유명 장소를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 가입은 유료다. 한편 도서관측은 '도서관의 친구'의 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도서관 내의 커피숍 뒤에 자그마한 '도서관의 친구 전용 휴게실'(Friends' Room)을 마련해 주었다.

4. 3 대학도서관

'대학도서관의 친구'는 은퇴교수, 동문,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대학도서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목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대학도서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내용을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았다.

-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도서관의 친구'
(Friend of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Ferguson 1996)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

12) The Friends of the British Library <http://www.bl.uk/about/cooperation/friends.html> [Accessed 02/02/05]

13) 영국 조지왕 4세(King George IV)는 자신의 아버지 조지3세가 모은 개인장서(도서 65,000권, 팜플렛 20,000건 그리고 필사본 도서 400권)를 국가에 기증하였다. 이에 영국 국립도서관은 이 장서를 기본으로 하여 관내에 별도의 개인문고(the King's Library)를 만들었다.

‘도서관의 친구’는 1925년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에 각각 ‘도서관의 친구’가 조직된 이듬해인 1926년 만들어 졌다. 이 그룹의 설립은 이 대학을 은퇴한 Smith 교수와 재직시절 책을 가까이한 다른 은퇴교수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훌륭한 스승을 잊지 못한 동문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격적인 활동은 1951년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시 시작되었다. 첫째, 콜롬비아재단 도서관들에 대한 동문 및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교육에 있어서 연구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둘째, 콜롬비아대학교 도서관에 재산 상속 등, 기부를 독려하는 중재자로서 역할 수행과 전시회, 특별 프로그램 수행 및 각종 출판물을 통해서 이 대학을 돕는다. 결론적으로 이 ‘도서관의 친구’의 설립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서관의 의미 및 중요성을 인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들로부터 도서관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이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많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협력을 얻고 있다. 그렇지만 도서관과 ‘도서관의 친구’는 외부 지원자(supporters)들이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에 동의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을 위해서 한 명의 도서관직원이 ‘도서관의 친구’의 운영의 실무를 직접 도와주고 있고 관장은 도서관과 ‘도서관의 친구’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그룹의 운영은 위원회(council or board)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위원회 위원들은 대학총장의 추천에 의해 대학교 혹은 단과대학

이사들에 의해 임명된다. ‘도서관의 친구’는 교수, 대학당국자, 사서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큰 대도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는 지역전문가 집단 혹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원을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회원의 양적 확보가 언제나 최고의 지원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때때로 헌신적인 일부 회원들에게 집중된 지원 요청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다. ‘도서관의 친구’ 운영경비는 회비로 충당된다. ‘도서관의 친구’는 여러 계층의 회원을 두고 각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회비를 부과한다. 회비에 의한 기금 모금은 도서관의 중요한 자료의 수집, 기기 및 가구의 구입에 쓰이기도 한다. 이 그룹은 도서관 및 자신들의 활동에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모임이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 ‘도서관의 친구’는 각종 출판물 예를 들면 뉴스레터 등을 발행하여 회원들 간의 친밀한 교류를 돕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에 의해 지난 30년 동안 이 그룹의 회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4. 4 학교도서관

Buboltz(1996)는 ‘학교도서관의 친구’ 출현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몇몇 지역의 학교도서관·미디어센터 사서들은 도서관의 존립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고 또 학생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오래된 자료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 또 예산삭감, 학교구조 조정, 고용체계의 변화, 도덕성의 해이 등이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도서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고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사서교사들이 '도서관의 친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학교도서관의 친구'의 운영과 활동을 아래 두 그룹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 미국 텍사스 서덴튼 고등학교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 Denton High School West, Denton, Texas) (Buboltz 1996)

이 고등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을 때 학교 도서관의 자료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학부모와 지역 유지들은 학교가 개교를 준비할 때부터 이에 필요한 시설들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 받았었다. 이에 텍사스 여자대학 문헌정보학교 학과장을 포함한 두 명의 교수, 시 행정가, 두 명의 사업가, 학교 감독자, 교장선생님 그리고 사서가 참여하여 초기 그룹을 만들었다. 그 후 이 모임이 주축이 되어 50여명의 아버지들은 'Dad's Roundup'이라고 불리는 '도서관의 친구' 조직을 만들었고 이 그룹은 학교도서관의 자료 확충을 돕기로 결정하였다. 이 '도서관의 친구'는 새로운 학교가 성공적으로 개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도서관의 친구'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학교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기금을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그룹의 구체적인 활동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와 컴퓨터 주변기기의 기증 접수, 둘째, 사서채용 비용 부담, 셋째, 사서에게 멀티미디어 기술 경험 기회제공, 넷째, 도서관 기금에 대한 정보 확보.

- 미국 플로리다주 팜 코스트 와즈워스 초등학교 '도서관의 친구'(Wadsworth Elementary School Library Friends, Palm Coast, Florida) (Buboltz 1996)

이 '도서관의 친구'의 회원은 학부모, 지역주민, 학생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서관 미디어 관련 모든 프로그램의 향상, 둘째, 지역주민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인식 고취, 셋째,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학교도서관 운영의 참여기회 제공, 넷째, 학생들의 학교도서관에 대한 주인의식 고취.

학부모 그룹과 지역주민 그룹은 각각 1년에서 세 번씩 모임을 갖는다. 이들은 사서들을 돕고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학생그룹이 그들의 과업(projects)을 펼치는 것을 돕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 학생그룹은 한달에 한 번씩 방과 후에 모임을 갖는다. 학생들은 '도서관 미디어의 달'(Library Media Month) 행사를 개최하고 각 학년별 권장도서목록을 만들어 각 교실에 배포한다. 이 외에도 학생들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서관 소개, 선생님을 도와기기 및 자료 배열, 도서전시회 등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한다. 학생그룹은 또한 자신들이 모은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들은 살아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새, 물고기, 고양이, 토끼와 그 외 작은 동물들을 기르는 것을 지원하였다. 또한 이들은 도서관 밖에 독서 벤치를 설치하였고 도서관 밖 화단을 가꾸는 것 등도 지원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그룹은 도서관미디어 시설 및 확장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편 이들의 활발한 활동 뒤에는 자신들의 시간과 노력을 쏟아 학

교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자 했던 학부모들의 뒷받침이 있었다.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 시간 그리고 육체적인 활동의 힘을 쏟았다. 학부모들의 자녀들을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학교도서관의 친구’의 탄생을 가져왔다.

4. 5 특수·전문도서관

‘도서관의 친구’는 세계 여러 나라의 특수·전문도서관에도 조직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들 도서관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의 친구’는 다른 관종의 그룹과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특수·전문 ‘도서관의 친구’는 기금을 모으고, 기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한다. 그리고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시켜 궁극적으로 도서관이 모(母)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충분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한다. 특수·전문 ‘도서관의 친구’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이슬란드 최초의 ‘도서관의 친구’는 점자도서관¹⁴⁾에서 조직되었는데 이 그룹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카드를 판매하고 모아진 기금으로 도서관 자료 구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였다. 한편 영국 런던대학교 소속의 Wellcome 의학사 연구원¹⁵⁾에도 ‘도서관의 친구’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그룹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출판물 발행을 지원하는 등 연구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Dolnick 1996).

● ‘병영도서관의 친구’(Friend of Military Libraries) (Johnson 1996)

이 ‘병영도서관의 친구’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들이 병영도서관의 프로그램, 시설, 서비스 그리고 활동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둘째, 도서관의 자료와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 시키며, 셋째, 도서관운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도서관을 위한 물품과 기부금 전달을 장려한다.

이 그룹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자격은 큰 제한이 없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병영도서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그룹에 가입할 수 있다. 회원은 크게 네 그룹으로 나뉘며 그에 따라 회비에 차이가 있다. 즉, 1년에 개인회원의 회비는 5달러, 가족회비는 10달러, 16세 이하 청소년 회비는 2달러이며 기관회원의 회비는 25달러이다. 집행위원회 회의는 매달 열리고 정기모임은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5. 끝맺는 말

‘도서관의 친구’는 지난 1세기동안 도서관을 지원하고 지켜오는 등 도서관과 함께 해온 말 그대로 도서관의 ‘친구’이다. 이 그룹은 특히 영·미권 국가에서 활발하게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대체로 도서관 문화가 발전하는 등 경제 사회가 발전한 국가에서 그 활동이 활발하다. 이 그룹은 관종을 떠나 거의 모든 종류의

14) The Icelandic Library for the Blind in Kopavogur, Iceland.

15) The Wellcome Institute for the History of Medicine.

도서관에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관중은 달라도 대체로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즉 기금모금과 자원봉사 외에도 도서관홍보, 도서관캠페인 및 지역주민연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내용으로 인해 '도서관의 친구'는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시민사회가 성숙되는 과정에서 지난 30년 사이에 그 숫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필자는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도 하루 빨리 '도서관의 친구' 그룹을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친구'의 활용은 우리 나라의 도서관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즉 '도서관의 친구'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도서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함으로써 중앙 및 지방정부 혹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이 그룹은 정식 예산외에 더 나은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금을 시민사회로부터 추가로 모으기 위해 활동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종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친구'의 도움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추가 기금의 확보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기금모금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나라의 상황은 우리도 '도서관의 친구'와 같은 후원회 조직을 만들어 활용할 시점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즉, 우리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반면에 개인의 경제력이 향상 되면서 시민들의 기부문화는 차츰 정착되고 있다.

'도서관의 친구'의 자원봉사들은 또 사서가

수행하는 일상적이고 단순한 도서관 업무를 도와줌으로써 사서들이 이들 업무로부터 벗어나 좀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또한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홍보, 도서관캠페인 그리고 지역주민연계 활동 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이처럼 '도서관의 친구'는 도서관의 운영을 개선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용자를 도서관으로 끌어들이는데 더없이 중요한 조직체가 될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볼 때 '도서관의 친구'는 이 그룹이 사서들에게 처음 소개 될 때부터 빠르게 발전했던 것은 아니다. 대체로 각 나라에 관중 별로 한 두 개의 그룹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들 그룹의 활동 결과가 다른 사서들에게 소개됨으로서 널리 확산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도서관의 친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중 별로 한 두 개의 도서관에 먼저 이 그룹이 시범적으로 조직되고 그 결과가 학회 세미나 혹은 '전국도서관대회' 같은 곳에서 발표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의 친구'를 시범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의 운영과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 한글로 된 자료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내에 '도서관의 친구'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들이 사서들에게 소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의 이 연구는 국내 도서관에 이 그룹이 조직되는데 있어 사서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도서관의 친구'는 잘 조직화되어 있고, 많은 경우 회비를 징수하고 또 자원봉사 외에

도 다양한 활동들을 한다는 측면에서 도서관 자원봉사조직과 구별 된다. 위에서도 밝혔듯이 현재 우리 나라에 많은 도서관 자원봉사 그룹은 있지만 '도서관의 친구'라는 조직은 없다. 그러나 이 자원봉사 조직은 '도서관의 친구'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 그룹은 일정 수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

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자원봉사 조직을 '도서관의 친구'로 바꾸는 데는 조직의 활동 목표에 자원봉사 외에 기금모금, 도서관 홍보 및 캠페인, 지역주민연계 등의 활동들을 새롭게 추가하면 된다.

참 고 문 헌

- 이혜연. 2000. "공공도서관 운영의 주민참여 방안: 지역주민과 함께 일구어 나가는 공공도서관." 도서관운동연구회 편저. 공공도서관 운영론. 125-183쪽.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Buboltz, Dale. 1996. "Friends in School Libraries and Junior Friends." In: Dolnick, S. (ed.), *Friends of Libraries*, pp.117-130. 3rd ed. Chicago: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udnik, C. 2002. "Implementing the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Grant for Public Access to Computers and Internet in public libraries throughout Chile." 68th IFLA General Conference and Council, 18-24 August 2002 Glasgow.
- Bundy, A. 1998. "Friends of Australian Public Libraries in 1998." *Australian Public Libraries and Information Services*, 11(4): 165-173.
- CIPFA(Charters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2002. *Public Library Statistics*. London: CIPFA.
- Dolnick, Sandy. 1987. "Friends of Libraries." *(The) Library Association Record*, 89(3): 139, 141.
- Dolnick, Sandy. 1996. *Friends of Libraries*, 3rd ed. Chicago: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Ferguson, A. W. 1996. "Friends of the Columbia University Libraries." In: Dolnick, S. (ed.), *Friends of Libraries*, pp.236-240. 3rd ed. Chicago: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Ferguson, D. 1991. "Friends of the library groups: Implications for promotion of library interests." *Australian Library Journal*, 40(4): 328-335.
- Ferguson, D. 1997. "Harnessing Community Support for Public Libraries." *Australian Public Libraries and*

- Information Services*, 10(1): 47-51.
- Johnson, M. 1996. "Friends of Military Libraries." In: Dolnick, S. (ed.), *Friends of Libraries*, pp.231, 273-276. 3rd ed. Chicago; London: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Kim, Y. S. 2003. *Public Libraries and Friends of the Library Groups: the influence of Friends groups on public library policy*. Ph.D. Thesis, University of Sheffield.
- Kirby, M. 1995. "Libraries need friends." *Australian Library Journal*, 44(3): 113-118.
- Leerburger, B. A. 1989. *Promoting and marketing the library*, Rev. ed. Boston, Mass.: G. K. Hall.
- Murison, W. J. 1979. *Public library user's consultative councils*. (The British Library Research & Development Reports). London: the British Library.
- Skory, V. 1989. "Friends of the library". *Canadian Library Journal*, 46(5): 317-321.
- Smith, G. 1998. "Chairman's introduction". In: Sugg, A. (ed.), *Friends of Libraries: a new dimension?: proceedings of a seminar held at Stamford, Lincolnshire on 23rd June 1998*. pp.1-3. Burton: Capital Planning Information.
- Smith, G. 1999. *Friends of Libraries*. Burton: Capital Planning Information. (Library and Information Commission Research Report 5)
- Wallace, D. L. 1968. "Friends of Libraries", In: Kent, A., Lancour, H. & Daily, J. E. (ed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9, pp.111-131. New York: Marcel Dekker.